

# 2025년 11월 주일 대표 기도문

2025년 11월 주일 대표 기도문

---

2025년 11월 주일 대표 기도문으로 한 해의 마무리와 감사를 올려보세요. 11월은 추수감사절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번 달 주일예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도문들을 통해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 2025년 11월 주일 대표 기도문 1: 추수감사의 기도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행사를 만민 중에 알리며” (시편 105:1)

---

올해도 마지막 두 달을 앞두고 있는 11월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에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추수감사절을 맞아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각 가정에 베풀어주신 크고 작은 은혜들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지내온 날들, 평안했던 일상들, 그리고 어려움 중에도 함께해 주신 주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서 거두어진 풍성한 열매들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농부들의 수고와 땀방울을 통해 우리 식탁에 올려진 모든 양식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공급하심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이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2025년 11월 주일 대표 기도문 2: 한 해 마무리 기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20)

---

2025년의 열한 번째 달을 보내며,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베풀어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많았습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시련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시며 성장하게 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어르신들의 건강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들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평화의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며, 통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달여의 시간도 주님과 함께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정리하며 감사할 일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의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 2025년 11월 주일 대표 기도문 3: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27)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집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목회자들과 중직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예배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목회 사역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구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도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울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도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2025년과 다가올 2026년에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2025년 11월 주일 대표 기도문 4: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내가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디모데전서 2:1-2)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을 치유하시고, 모든 국민이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가 겪은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각 분야의 리더들이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 상생과 협력의 정치문화가 정착되기를 간구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의 취업난과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해결되고, 서민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고, 복음이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전해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분쟁들도 주님께서 평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중동지역의 갈등들이 하루속히 종식되고 평화가 정착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 2025년 11월 주일 대표 기도문 5: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

“또 아버지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4)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확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기도드립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신앙으로 양육되는 가정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각 가정이 돌아보며 서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 간의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에게는 자녀 양육의 지혜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학업과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에게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집중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의 뜻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젊은 부부들에게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 부담과 육아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직 자녀를 갖지 못한 가정들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계신 어르신들과 한부모 가정들을 특별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이들에게 가족과 같은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실질적인 도움과 위로가 되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예배를 통해 가족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서로의 신앙도 격려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러한 기도문들을 통해 2025년 11월 주일예배가 더욱 은혜롭게 진행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자세한 예배 정보와 기도문은 [주일예배 안내] (<http://klmc.church/klmc/worship/sunday-worship.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